

■ '전효숙 인준' 파문 이번주가 고비

“흠결 없는데 절차가...” 민주당 고심

민주 “국회 절차 따라 의사 결정” 원칙론 고수할 듯 우리, 직권 상정후 본회의의 강행처리 가능성 높아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효숙 후보자의 인준 파문은 이번주에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이번주까지 국회가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추석연휴와 국정감사로 인해 헌법재판소장의 장기 공백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해법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청와대가 지난 21일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국회 법사위가 받아들이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 “지역민 목소리는 부담된다”

이럴 경우 여당은 민주당과 민노당의 협조를 얻어 인사청문안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고 28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는 방안을 시도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안이다. 그러나 당장 임재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다 비교급 야 3당의 협조도 불투명한 상황여서 과연 국회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세 번째는 전효숙 후보자가 노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진 사퇴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경우다. 이 방안은 참여정부의 하반기 국정 장악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다음달 21일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직접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지역민들은 물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며 열린우리당쪽으로, 국민중심당은 새로운 후보자를 내놓으라며 한나라당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여서 민주당이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의원 총회를 거쳐 당의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효숙 현재소장 후보자가 도덕적, 직무적 흠결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輿, 대통령 직접 재판관 임명 검토

그러나 이번 사안은 헌법 최고 기구의 중립성이 떨어지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유투표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유투표를 선언한다 해도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의원이 2~3명에 불과, 임명동의안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는데다 투표에 불참, 현재소장 공백 장기화를 초래했다는 여론의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김효숙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정치 공세라고 볼 수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당의 의사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방미단 서글픈 사대주의

작통권 반대 방문은 동맹-예속 분별 못해”

김원웅 통의통위장 비판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사진)은 24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한나라당 대표단을 겨냥, “21세기판 모화(慕華)주의자들이 동맹과 예속을 분별하지 못하는 서글픈 사대주의로 나라 망신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날 사대주의에 찌든 지배층이 조선의 안위와 중국의 안위를 분별 못하는 자주적 인식의 결여로 병자호란을 자초했다”며 “자국 국익에 충실한 외국군 장성 등에게 전역역사의 평가를 두려워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 이상득 방미단장이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옛날에 중국에 조공도 바치고 책봉도 받으면 서 살아왔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러면 고구려의 을지문덕과 연개소

문도 바보짓을 했던 말이나”며 “살아남기 위해 일본의 식민지배를 환영한 이완용도 지하에서 ‘나도 당시 같은 생각이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방미단은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국 국무부, 국방부와 접촉했지만 작통권 주무부서 인사와의 만남을 이루지 못했다”며 “미국측에서는 ‘왜 만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공연 감명 깊었어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를 방문중인 한명숙 총리가 24일 오후(한국시간) 알마티 시내 고려극장을 방문, 공연을 관람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대통령 에너지 총선

오늘부터 집무 복귀

지구를 한바퀴 돈 2주간의 해외순방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25일부터 집무에 정상 복귀한다.

윤태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노 대통령이 지난 금, 토, 일요일 사흘간 충분한 휴식을 위해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며 “내일 정상적으로 출근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4대보험’ 통합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동영 전 의장 정치 복귀 수순?

“길 찾는데 도와 달라” 일부 의원들에 염서

독일에 체류 중인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이 내달 1일 귀국을 앞두고 일부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한 염서가 화제다.

정 전 의장은 최근 우리당의 한 중진의원에게 보낸 염서에서 “술에도 길이 있듯이, 세상에서 지러워도 길은 항상 있다고 믿습니다”라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선배님이 도와주시고”라고 부탁했다고 이 의원이 24

일 전했다. 정 전 의장의 한 측근은 “염서에 여러 차례 언급된 ‘길’은 정 전 의장이 평소 좋아하는 루쉰(魯迅)의 글 가운데 한 대목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현재 탈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여당 내에선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던 정(전) 의장인 만큼 새로운 희망의 싹을 키워보겠다는 의미로 합하고, 지지자를 확보해 정치 일선에 복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진민기자 man21@

고건 ‘정계개편 준비’ 시동 걸었나

“여·야의원에 중도 통합 메시지 보내기로”

여론조사 하락 위기감 고조... 주도권잡기 포석

미국 방문을 마치고 24일 귀국한 고 건 전 총리(사진)가 연말께로 예상되는 정계개편 준비의 시동을 걸 조짐이다.

고 건 총리의 한 측근은 “고 건 총리가 귀국 후 중점적으로 여야 현역 정치인들과 접촉할 방침”이라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의 발언들이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을 주로 만나겠지만, 한나라당 소속 의원 가운데서도 합리적 성향의 의원들과 접촉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에게 ‘중도실용주의 세력의 통합운동에 동참해달라’는 수준의 강한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라

고 말했다. 지금껏 정치권 바깥에 머물렀던 전 총리가 그동안의 신중한 행보에서 탈피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예고하는 것은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잡지 못할 경우 아예 정계개편의 흐름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진(親) 고건계’ 핵심인 민주당 신 중식 의원이 최근 고 건 총리를 향해 “자칫하면 시기를 잃고 정치권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점이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당 지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 실제로 고 건 총리는 최근 들어 ‘정

치적 구조조정론’을 주장하는 등 정계개편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던 그는 특과원들과 만나 “어떤 방향이든 연말께 우리나라도 정치적 구조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구조조정 움직임이 태동하리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고 건 총리는 지난 12일 열린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만나 우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 경선제)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고 건 총리가 여당이 추진중인 중도개혁세력 통합론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고 건총리가 여당이 주도하는 통합 논의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발원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와 관련, 고 건 총리의 측근은 “고 건 총리는 기존의 정당에 가입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존의 정당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고 건 총리의 입장은 정치권에서 통합심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enchuri' (선추리) insurance. It features a man in a white shirt and a woman in a blue uniform. Text includes '입소용 병·난방기 대표 브랜드', '152만원 파격지원', '75% 연료비 절감!', and '무보중 장기일부'. A phone number 1588-8717 is prominently displayed at the bottom.

Advertisement for 'Sanmyeongnani' (산영안네) insurance. It features a family of four. Text includes '산영안네' and various insurance details.